

COVID-19 팬데믹의 담을 훌쩍 넘어선 우리의 열정

2021년 간사장 고려대학교 김희남

먼저, 올해에 창립 5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살림살이를 2021년 한 해 동안 간사장으로서 맡았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게 그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학회의 여러 선후배 교수님들, 박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큰 감염병 재난을 겪은 해로서, 우리 학회에도 기억에 남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2019년 말에 발생하여 2020년 중 하반기 이후에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이 2021년에 들어서서는 더욱 심해져서 한 주 후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제한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학회의 모든 행사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김건수 회장님의 넓은 우산 아래에 이진원 총무간사님, 이상준 재무간사님, 박미경, 윤현진, 윤상선, 이동우, 최윤이 학술간사님, 편집 간사님이었던 정희곤, 박희수, 김성준, 변상균, 조병관(이상 영문지편집간사), 이창로, 김옥빈, 김학준, 정도원, 정영훈(이상 국문지 편집간사), 김병식, 김수정, 서주현(이상 생물산업 편집간사), 산학연 협동 간사님이었던 김병용, 김형준, 강성준, 조성학, 최학중, 국제협력간사님이었던 고아라, 윤노 타쯔야, 장수진, 홍보조직 간사님이었던 신수임, 유하영, 이하나, 조현열, 그리고 기획간사님이었던 김인섭 교수님 등 훌륭한 간사진내의 끈끈한 팀워크, 샘솟는 기지,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용기를 통해 한 해 동안 무사함을 넘어서서 성공적으로 학회의 살림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당 해의 공식 행사는 2월에 동계심포지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생물학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극복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매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어서, 원래 1월에 진행하려던 계획을 조정하여 기회를 보다가 한국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산 광안리에서 개최한 동계심포지엄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고, 후에 부산 BEXCO에서 열렸던 연례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에서도 같은 형태의 하이브리드 운영을 통해 아직 깊숙한 팬데믹 중이었음에도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참석자와 포스터 및 구두 발표 건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저명 학자들의 기조 강연(plenary lectures)은 평시에는 직접 모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온라인 형태여서 수월했던 이점도 있어서 수준 높은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두 주요 학술행사가 대성공을 거둬서 따라, 하반기에 애초에 계획에 없던 워크숍을 하나 더 진행했습니다. 한동안 몇몇 타 학문에 중요도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온 미생물학을 다시 부흥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와 관련해서 국내외 치료제 개발 현황을 논하는 워크숍을 삼성동 COEX에서 개최하였고, 이 또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2021년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근 50년에 이르는 동안 이어진 많은 원로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노력과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우리 학회의 탄탄한 구성과 전통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전통을 잇는 많은 젊은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든든한 학회의 대들보와 기둥이 되고 있어서 우리 학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회들과 구분되는 우리 학회의 큰 장점은 구성원들의 높은 다양성과 그런데도 서로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끈끈한 공동체적 유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서적 유대감의 토대 위에 학문적 진취성이 발현되는 것이 우리 학회의 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큰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굴하지 않았고, 전문성을 살려 COVID-19의 극복을 위한 학문의 장을 열었고,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발전에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미생물학의 르네상스가 태동함에 따라 미생물학 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우리 학회는 미래 미생물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세계화에도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학회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